



(주)경원문화사, 물러마티니 도입 오픈하우스

“영업력 · 서비스로 업계 최고 브랜드 다짐!”

(주)경원문화사(대표이사 양미영)가 지난 10월 8일 물러마티니 알레그로 무선철 제책기를 비롯한 다이아몬드 양장기, 벤추라 사철기 등의 도입에 맞춰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 특히 경원문화사는 지난 2011년 6월 사업을 시작한 이래,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올해 4월 신사옥을 준공, 확장 이전하고 시설을 대대적으로 증설한 것이어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적극적 영업으로 3년여 만에 고속 성장

경원문화사는 창업 3년여 만에 고속으로 성장했다. 이는 4월의 신사옥 준공과 이번의 설비도입 규모만 봐도 가히 짐작할 만하다. 이처럼 경원문화사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타 제책사와는 확실히 차별되는 양미영 대표이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업방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제책사는 인쇄사에서 작업을 전달받는 것에 익숙해 특별한 영업을 하지 않는데, 경원문화사는 기획디자인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영업 활동을 전개했다. 작업을 맡기는 주체가 인쇄사이기도 하지만 기획디자인업체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활용한 영업 전략이다.

통역사 경력이 남과 다른 경영 방식 토대

영업하는 제책사로서 매출 신기원을 이룩하고 있는 경원문화사가 공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양미영 사장의 독특

한 이력이 배경이 됐다. 수주산업적인 성격이 강한 제책업과는 다르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을 만나 전문적인 대화를 나눠야 하는 통역사의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 사장은 “제책기와 관련한 통역 업무를 했었는데, 제조사와 고객사의 말을 여러 번 전달하다보니 장비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관심이 커졌고, 이를 계기로 장비 유통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면서 제책기와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을 밝혔다. 유통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자 제책기와와의 인연은 점점 더 긴밀해졌다. 양 사장은 “제책기를 유통하며 수많은 제책사에 기계를 설치했다. 그러면서 ‘나라면 약간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텐데...’ 하고 혼자 생각하곤 했었다. 그러던 중 가깝게 지내던 사장님이 영업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사업체를 인수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해왔다. 이에 2011년 6월 제책사를 인수, 경원문화사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동화 · PUR 장점으로 물러마티니 선택

이번에 도입한 물러마티니의 알레그로 무선철 시스템은 드루파2012에서 처음 선보인 장비다. 최고 속도는 시간당 8000통에 불과하지만 다른 제품과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장점이 있다. MC테크놀로지를 채용하고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에 독립모터를 세팅함으로써 인력의 개입을 최소화했다. 또한 빠른 작업전환을 실현함으로써 요즘 트렌드인 다품종 소량 인쇄에 매우 적합한 설비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사장은 “물러마티니는 자동화를 실현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향후에는 PUR 작업에 더욱 집중할 계획인데, 가장 신뢰할 만한 브랜드인 물러마티니를 선택하게 됐다”면서 “물러마티니의 PUR 시스템은 책등에서 섬유질을 뽑아내는 ‘파이버 러퍼’가 특화돼 있어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 훨씬 견고한 품질을 자랑한다”고 밝혔다.

장비뿐만 아니라 인력에도 아낌없이 투자

시설을 도입하며 양 사장은 장비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인력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직원 2명을 회사 경비로 물러마티니 스위스 본사에 교육 보낸 것이다. 엄청나게 고가인 장비를 도입한 만큼, 이를 100% 발휘하기 위해선 인력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부응하듯 교육에 참가했던 기장은 제책사 직원으로서 처음 받게 되는 출장명령이었지만, 물러마티니의 최신 기술을 배우는 중요한 기회를 잘 활용했고, 이후 보고서도 멋지게 작성해 보다 안정적인 장비 운영의 자신감을 높였다.

또한 경원문화사는 물러마티니 알레그로 무선철 제책기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양장기와 벤추라 사철기도 함께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부가가치가 높은 PUR 작업을 보다 잘 진행하기 위한 경원문화사의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PUR 물량이 많지 않지만 향후 수요가 증가하고 고급화에 대한 요구

가 늘어날 경우, 고부가가치의 PUR 양장 제책 시장도 함께 성장할 것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정신에서 신뢰도 향상으로

경원문화사는 서비스 정신을 특히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제책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고객들의 요구에 완벽히 부응해야 하는 서비스업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원문화사 모든 직원들은 생산 책임자이자 영업 관리자라는 생각으로 모든 작업에



혼신의 힘을 다한다. 이는 고객을 대하는 관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유럽과 같은 인쇄선진국에 다녀온 고객들이 특이한 형식의 책자를 갖고 와 만들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많은 제책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어렵다는 답변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경원문화사 임직원들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 이에 고객들은 반가워하고, 실제로 작업을 성공해 내면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진다. 서비스 정신에서 시작해 신뢰도로 연결되는 성공 고리다. 이를 통해 중국에는 경원문화사에 가면 모든 방식의 제책작업을 할 수 있고, 경원문화사에서 할 수 없으면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고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최종 목표다. 경원문화사라는 브랜드가 제책업계 최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1. 경원문화사 신사옥



2. 양비영 (경원문화사 대표이사)



3. 알레그로 무선철기

4. 다이아몬드 양장기

5. 벤추라 사출기